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1. 9.(수) 15:30 | 배포 일시 | 2022. 11. 9.(수) 15:30      |
| 담당 부서 | 문화체육관광부<br>재정담당관      | 책임자   | 과장 조상준 (044-203-2231)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조민규 (044-203-2233)     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<br>문화예산과        | 책임자   | 과장 김완수 (044-215-7270)  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사무관 이은숙 (grangji@korea.kr) |

## '23년도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4.6%, 3,712억 원 증가했습니다

### < 보도 내용 >

- 11월 9일(수) 서울경제는 “나라살림 어렵다고 예산 짝둑 오락비 취급받는 문화관광재정” 기사에서 “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예산은 8조 5,038억 원으로 올해 대비 6.5% 감액되었으며, 문체부는 9.5%나 급감했다.”라고 지적

### <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>

- '23년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 예산은 지방이양, 용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 등\* 고려 시 '22년 대비 3,712억 원, 4.6% 증가

\* (지방이양) 공립 문화시설(2,655억 원), 공립 체육진흥시설(1,859억 원) 등 4,515억 원, (용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) 관광용자(2,000억 원), 스포츠용자(1,040억 원) 등 3,040억 원, (코로나 한시 지원 종료) 영화관·체육시설 인건비(1,202억 원), 경륜·경정용자(650억 원) 등 2,094억 원

○ 또한, 문체부 예산은 '22년 대비 2,757억 원, 4.3% 증가한 것

- 지방이양<sup>①</sup>, 용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<sup>②</sup>이 있더라도 문화·체육·관광 분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계속되며, 코로나 피해 극복세를 고려하여 일회성 지원사업은 종료<sup>③</sup>하고 민간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로 전환

- ① 지방이양사업(4,515억 원)의 경우 각 지자체 재정을 통해 문화·체육 분야에 지속 투입 예상되며,
- ② 용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(3,040억원)\*은 국가의 직접용자 대신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관광·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'22년 수준을 유지\*\*하고,
  - \* 특정목적용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
  - \* 용자 공급 규모
    - (관광) ('22) 용자 6,490억 원 → ('23안) 용자 4,465억 원, 이차보전 공급 1,000억 원
    - (스포츠) ('22) 용자 1,840억 원 → ('23안) 용자 761억 원, 이차보전 공급 1,560억 원
- ③ 코로나 한시지원(2,094억 원)의 경우 피해 극복세\* 등을 고려, 인력·방역 등 일회성 지원 대신 예술·콘텐츠 등 소관 분야의 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, 관광 회복 지원 등 핵심 분야 집중투자로 전환하였음
  - \* 상반기 공연시장 규모(억 원) : ('19) 1,917 → ('20) 983 → ('21) 1,171 → ('22) 2,315
  - '22년 방한 외래관광객(만 명) : (1월) 8.2 → (8월) 31.3(1~8월 누적 138만 5천 명 전년동기 대비 130.7%)

